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Resilience) 척도개발 연구: 척도의 타당화 검증을 중심으로*

The Measurement Development of Korean Families with Adolescents' Family Resilience: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the Measurements' Construct Validity*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생활과학연구소
교수 · 연구원 옥 선 화
Univ. of Minnesota Dept. of Family Social Science
Associate Professor Martha Rueter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 수 이 미 숙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 교 수 이 주 리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권 희 경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 사 남 영 주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
Prof. & Researcher : Sun Wha Ok
Dept. of Family Social Science, Univ. of Minnesota
Associate Prof. : Martha Rueter
Dept. of Child Development, Catholic Univ. of Korea
Prof. : Mi-Sook Lee
Dept. of Child Welfare, Chung-Ang Univ.
Associate Prof. : Julie Lee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 Won National Univ.
Full-Time Instructor : Hee-Kyung Kwo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Youngjoo Nam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Corresponding Author: Hee-Kyung Kwo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 Won National Univ. 9 Sarim-Dong, Changwon, Gyongsangnam-Do, 641-773, Korea Tel: 82-22-279-7653 Fax: 82-55-279-7650 Email: hkkwon@changwon.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2-C00135).

06옥선화(59-74)2006.5.812:37PM페이지60

< Abstract >

As an exploratory inquiry prior to developing a measure to assess Korean families with adolescents' family resilience, this study examine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family resilience measures that were developed in the U. S. Iowa Youth and Families Project(Conger & Elder, 1994): emotional support between spouses, problem solving style between spouses, and parenting behavior. The participants were 277 pairs of middle aged, middle class husbands and wives (554 individuals) who were the parents of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s around Seoul. The results of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construct validity, indicating that emotional support, problem solving style, and parenting behavior may be used as measures to assess Korean family resilience. However, further tests of convergent validity using various assessment methods and analytical procedures are needed to ensure the construct validity of family resilience measures.

주제어(Key Words): 청소년자녀기 가족(families with adolescents), 가족 레질리언스(family resilience),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 부부간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between spouses), 부부간 문제해결방식(problem solving style between spouses), 부모의 자녀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I. 서 론

가족이 직면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가족의 레질리언스(resilience)[1]는 최근 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개념이다.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가족이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적응하는 과정을 말한다(Patterson, 2002; Walsh, 1998). 가족의 레질리언스 관점은 가족이 힘든 스트레스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보다 잘 적응하는지에 관심을 두며,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탄력적이 되도록 돕는 가족의 특성, 차원, 속성이 무엇인지 규명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McCubbin & McCubbin, 1988; McCubbin, Thompson, & McCubbin, 1996). 가족의 레질리언스에 대한 관심은 가족학분야에서 결핍과 병리보다 강점과 자원에 근거한 모델을 지향하는 경향(Hawley & DeHaan, 1996)을 반영한다. 결핍과 병리에 근거한 종래의 관점은 가족의 어려운 상황이 개인과 가족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 반면, 강점과 자원에 근거한 관점은 가족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과 가족은 오히려 건강하고 더 긍정적으로 적응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이때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가족의 강점과 자원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과 가족이 건강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주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인종별, 문화별, 민족별, 사회계층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가족 레질리언스의 기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을 검토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가족의 레질리언스 구성요인들은 문화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요인의 타당도를 확인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Conger & Conger, 2002; McCubbin & McCubbin, 1988)는 지적이다.

국내의 경우 레질리언스에 대한 연구[2]는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장애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알콜 중독 등 가족 구성원이 겪는 문제에 대처하여 가족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중심으로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의 초점과 대상, 레질리언스의 측정 방법 등몇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연구의 초점이 가족 내부에 귀인하는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중심으로 하였다. 즉, 만성 질환이나 정신분열증, 장애 등 가족원이 겪는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가족 외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가족이 어떻게 적응하고 회복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둘째, 연구 대상에 있어서도 주로 장애나 질병 등 보다 특수한 상황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가족의 적응 양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처해 있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발달상의 과업과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발달적인 관점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청소

1) 레질리언스(resilience)라는 용어는 대개의 연구에서 주로 탄력성으로 번역되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 회복력, 복원력 등으로 번역되었다. 번역한 용어에 따라서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레질리언스(resilience)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2) 기화, 정남운(2004), 김명자(2003), 김미옥(2001a), 김미옥(2001b), 오승아, 이양희(1999), 이은희(2000), 이인수(2004), 장수미(2001), 최차숙(2002) 등의 연구가 있다.

06옥선화(59-74)2006.5.812:37PM페이지61

년자녀기 가족의 고충과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가족의 레질리언스 척도를 개발한 경우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셋째, 레질리언스 개념의 측정에 있어서도 주로 가족 구성원 1인의 응답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원의 관점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가족체계적인 관점에서 개인 수준이 아닌 다양한 가족 성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자녀기 가족은 가족생활주기 중에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시기에 속한다(McCubbin & McCubbin, 1988). 이는 자녀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면서 생물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변화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정서 및 행동적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자녀기 가족은 청소년자녀를 둘러싼 가족발달주기상의 전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긴장을 극복할 것이 요구된다(Conger & Conger, 2002). 따라서 청소년자녀의 부모는 다른 연령대 자녀의 부모보다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가족체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사회는 대학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풍토, 상업주의적인 소비문화, 청소년에게는 빈곤한 여가 공간과 여가 문화 등으로 인해 청소년 자녀기 가족의 부모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운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경계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이 항상성과 변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되기 쉽다. 이러한 가족 내외부의 환경은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자살 등의 청소년 부적응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어(김현실, 2005; 최윤진, 1999) 우리나라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상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역동적인 적응을 해야 하는 청소년 자녀기 가족을 대상으로 남편과 부인의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 가족레질리언스 개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청소년자녀기 가족을 종단연구한 IYFP(Iowa Youth and Family Project)에서 개발하고 사용된 척도(Conger & Elder, Jr. 1994)를 중심으로 이러한 척도들이 한국 가족에서도 적용가능한지를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가 근거한 IYFP(Iowa Youth and Family Project)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위기를 맞았던 1980년대 후반 미국 Iowa지역의 청소년자녀기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규명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IYFP가 개발한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 척도를 한국 가족에 적용하여 그 타당도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 구성요인들 중에서 부부간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 자녀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미국에서 개발된 척도가 한국 가족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에 대해 보다 적절하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고, 해당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가족의 레질리언스 요인에 기초하여 청소년자녀기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상담치료 및 가족정책 개발에 필요한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의 레질리언스(Resilience)의 개념

레질리언스(resilience)란, 역경으로부터 되돌아와서 더 강해지고 자원이 풍부해지는 능력을 말하며, 위기와 도전에 반응하여 인내하고, 스스로 복원하고, 성장하는 적극적 과정을 의미한다(Walsh, 1998). 또한 레질리언스는 가치, 태도, 및 행동 차원에서 볼 수 있으며, 개인, 가족, 지역사회 수준에서 각각 기술될 수 있고 이들은 상호의존적이다(Hawley & DaHaan, 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레질리언스를 연구한 McCubbin과 McCubbin(1988)은 가족이 변화 앞에서 붕괴되지 않도록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가족의 특성, 차원, 속성이라고 하였다. McCubbin, Thompson, 그리고 McCubbin(1996)은 가족의 레질리언스란, 역경의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이 보여주는 긍정적 행동유형과 기능적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이 가족구성원과 가족단위의 안녕을 지키면서 가족단위의 전체성을 유지하도록 가족이 회복하는 능력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Walsh(1998)는, 개인의 레질리언스와 달리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개인의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구별된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역경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가족이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적응하는 과정을 말하며(Patterson, 2002), 가족이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Walsh, 1998).

2. 가족스트레스 이론과 가족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

가족스트레스 이론은 가족이 힘든 스트레스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을 규명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가족의 레질리언스

06옥선화(59-74)2006.5.812:37PM페이지62

연구에 중요하다. 즉 가족스트레스 이론은 어려움과 역경에 처한 가족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가족의 강점, 자원, 대처행동이 수행하는 중심적 역할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레질리언스 개념은 가족스트레스 이론을 통해서 보다 잘 파악될 수 있다(McCubbin & McCubbin, 1988; Patterson, 2002).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가족이 역경에 대처하여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가족의 레질리언스 구성요인들은 크게는 가족의 자원과 지각으로 나타났다. 이는 Hill(1949)의 ABCX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 가족은 역경(X)에 대해 자원(B)과 지각(C)의 상호작용에 의해 적응(X)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 대해 McCubbin과 Patterson(1983)은 Double ABCX 모델로 발전시켰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가족의 자원과 지각, 그리고 특히 대처능력과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Patterson(1988)의 FAAR(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모델에서는 가족의 역량과 의미부여를 강조하고 있다. 가족의 역량은 가족이 가진 유형 및 심리사회적 자원, 그리고 가족의 대처행동을 포함한다.

McCubbin과 McCubbin(1988)의 탄력적 가족의 유형 모델은 가족강점 연구와 가족스트레스이론에 기초하여 가족이 역경을 극복하고 탄력적이 되도록 돕는 가족의 특성, 차원, 속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경우에는 재생형 가족모델이 중요한 강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응집력과 내구력이 모두 높아야 함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가족이 문제해결을 함께 하고,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가지며, 보다 적극적임을 뜻한다.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의 레질리언스 모델(McCubbin & McCubbin, 1988; McCubbin, Thompson, & McCubbin, 1996)에서는 가족이 보다 탄력적이 되도록 돕는 레질리언스 구성요인들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처음의 적응단계에서는 가족의 확립된 기능유형, 역경에 대한 인지평가. 가족의 자원, 문제해결 및 대처능력이 나타났으며, 다음의 적응단계에서는 가족 쉐마와 의미부여 그리고 가족의 사회적 지원이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이 추가되었다.

한편, Walsh(1998)는 가족스트레스 이론과 관련하여 특히 가족레질리언스 모델을 강조하였는데,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3개의 주요 요인들로서 가족의 신념체계, 조직유형,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을 제시하였다. 가족의 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관점, 초월과 영성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유형은 가족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요인으로서 융통성,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의사소통 과정은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도록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 명료성, 개방적 정서표현, 협동적 문제해결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가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에 근거하여 부부의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 그리고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을 살펴보면, 먼저 부부간 정서적 지원은 상호 배려를 통해 서로에게 안정감을 줌으로써 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또한 부부의 문제해결방식은 협동적 문제해결을 통해 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기여하는 요인이며,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자녀를 올바로 지도하고 감독함으로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 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기여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Conger와 Elder(1994)는 부부간 갈등이 자녀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을 방해함으로써 청소년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부모역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부부간 적대감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에게는 일관성이 떨어지고 거친 훈육행동을 하게 되며, 그 결과 자녀의 행동 및 정서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원활한 문제해결방식이 중요하며 이는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McCubbin & McCubbin, 1988; 1996; Walsh, 1998). 특히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라 스트레스와 긴장은 달라지므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별로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들은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경우에는 특히 부부의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 그리고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이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Conger & Elder, 1994; Conger, Reuter, & Elder, 1999; Conger, Reuter, Conger, 2000; Hawley & DeHaan, 1996; McCubbin & McCubbin, 1988).

이상을 종합하면, Patterson(2002)과 Walsh(1998)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의 레질리언스 개념과 모델은 이미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족레질리언스 모델은 가족의 자원과 강점, 성공 및 적응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인종별, 문화별, 민족별, 사회계층별로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McCubbin & McCubbin, 1988), Conger와 Conger(2002)도 가족 레질리언스의 기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은 어떠한지 검토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청소년자녀기 가족을 종단연구한 IYFP에 근거하여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으로 부부간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 그리고 자녀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가 근거한 IYFP의 척도를 활

06옥선화(59-74)2006.5.812:37PM페이지63

용한 많은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부부간 정서적 지원(Conger & Conger, 2002; Simons *et al.*, 1993), 부부간 문제해결방식(Conger & Conger, 2002; Conger, Rueter, & Elder, 1999), 그리고 부모의 자녀양육행동(Conger, Elder, Lorenz, & Simon, 1994; Kwon, 2004; Simons *et al.*, 2002)을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 구성 요소로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 그리고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3. 부부간 정서적 지원, 부부간 문제해결방식,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 부부간 정서적 지원

부부간 정서적 지원은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Voydanoff, 1990). 특히,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은 전문가나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지원보다 더 바람직한 자원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Buss & Redburn, 1983; Rayman, 1983; Voydanoff, 1990에서 재인용). 부부간 정서적 지원은 배우자의 지지적인 행동이 부정적인 생활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그 과정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충 역할을 한다(Walsh *et al.*, 1995).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Belsky, 1981, 1984; Simons *et al*, 1993)에서도 배우자간의 지지, 온정, 배려 등의 지원이 부모로서의 양육행동의 질적인 측면에 직 ·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에 배우자를 지지하고 이해하며,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대해 충고와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간접적으로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상대방의 심리적인 복지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로서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밖에 경제적인 곤란과 결혼의 질, 결혼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Conger 등(1990)의 연구에서도 일상적인 부부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배우자를 지지하고 도우며, 배려하는 정서적 지원은 결혼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비난하고 말다툼을 하며 다양한 행동을 통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 또한 결혼의 질과 불안정성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간 정서적 지원은 부모 자녀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lder *et al*, 1992). 이상을 종합해볼 때, 부부간 정서적 지원은 청소년자녀기 가족이 스트레스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의 레질리언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부간 문제해결방식

문제해결방식은 갈등을 다루거나 해결해내는 행동으로서의 전략을 지칭한다. 부부간 문제해결방식이란,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요구나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유머로써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갈등상황에 대해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Klein & Johnson, 2000).

어떠한 갈등 또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식은 여러 연구에서 가족이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아 가족에 대한 연구(Patterson, 1991)에서 긍정적인 문제해결방식은 가족간의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문제해결방식을 가지고 있는 가족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적응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이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부부가 상호간의 문제와 갈등을 협동적이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가족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Klein & Johnson, 2000)는 지적을 고려할 때, 부부간 문제해결방식은 가족 전체의 레질리언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겠다.

3) 부모의 자녀양육행동

부부의 자녀양육행동은 청소년 우울의 중요한 보호요인 또는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Conger *et al.*, 1993; 1994; 2000; Elder *et al.*, 1992; Ge *et al.*, 1994; Kloep, 1995)에서 자녀양육행동은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과 청소년 적응과의 관계를 중재하거나 매개한다고 가정하였다. 가정의 역경은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유로는 가정의 역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는 자녀양육에 있어 덜 양육적이고, 더 권위주의적이며, 비일관적이고 가혹한 신체적 훈육을 사용한다(Conger *et al.*, 1993)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의 우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 및 또 다른 발달적 위험요인들과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는데(Harrington, Rutter & Fombonne, 1997; O' Connor, Hetherington & Reiss, 1998; Patton, Coffey, Posterino, Carlin & Wolfe, 2001; Rey, 1995; Robertson & Simons, 1989), 특히 비일관적이고 처벌적인 자녀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06옥선화(59-74)2006.5.812:37PM페이지64

또한, 자녀양육태도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부모의 낮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자녀의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와도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Rey & Plapp, 1990) 또한, 적대적, 처벌적, 거부적, 과잉통제적이며 수치감을 조장하는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격성 발달과 유의미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Perris, Arrindell & Eisemann, 1994). 이 외에도 최근 정신병리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신체적 학대 및 방치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녀양육행동은 자녀의 우울증 뿐 아니라 품행장애 및 비행과 공격성에 대한 결정적인 위험인자로 밝혀졌다(Cicchetti & Toth, 1995). 반면 부모의 긍정적인 참여나 감독(자녀의 학교 내외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은 자녀의 품행장애나 비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y & Plapp, 1990)). 국내연구에서도 정윤주(2004)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준수 등을 감독하는 것은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비행청소년의 부모들은 일반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자녀양육행동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모 모두 돌봄이 적으며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러 연구들(이덕순, 1980; 원유미, 2000; Chamberlain & Patterson, 1995; Davis & Cummings, 1994; Dekovic & Janssens, 1992)에서 부모의 처벌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부모양육행동은 자녀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가족의 레질리언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이 연구는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 척도 개발에 목적이 있으므로, 조사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제한하였다[3]. 구체적으로는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277쌍(총 5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편들의 평균 연령은 43.8세(SD=3.45)이고, 부인들의 평균 연령은 40.6세(SD=3.35)였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411.5만원이었다.

2. 자료수집방법

1) 측정도구의 적합성 검토

본 연구는 미국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가족레질리언스 측정 도구는 IYFP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던 이 연구의 공동연구자가 IYFP 책임연구자의 동의하에 영문 원척도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두 차례의 역번역 과정[4]을 거쳤다. 전문가에 의한 역번역 과정을 통해 척도를 수정하여 예비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04년 7월2일부터 7월9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어머니 36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대일 면접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응답자들에게 무리 없이 잘 수용될 수 있는지, 문항의 내용이나 표현 중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어머니 한 사람이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35-40분이었다.

3) 본조사

예비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질문지를 수정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20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조사 지역은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으로는 먼저 서울 지역의 경우 비례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서울의 행정구역 구분에 의하여 25개구 지역별로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청소년자녀기

3) 이 연구는 연구자들의 청소년자녀기 가족에 대한 종단적 연구 기획의 첫 단계이므로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진입시기로 볼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국제협동과제로서 비교 대상 자료인 미국의 IYFP 역시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 대상임.

4) 각 척도의 문항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미국과 한국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자들이 먼저 수차례의 회의에 걸쳐 원척도를 우리말로 번역한 후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다음에는 전문번역가를 통해 두 차례의 역번역 과정을 거쳤다. 역번역 과정은 먼저 영어로 된 원래의 문항들을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부합하게끔 우리말로 번역하도록 의뢰한 뒤, 우리말 문항들을 또다시 영어로 번역하도록 한 후 본래의 영어문항과 최대한 가까운지를 비교해봄으로써 문화간 차이와 오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역번역 과정은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중언어 통번역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번역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06옥선화(59-74)2006.5.812:37PM페이지65

〈표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남 편			부 인		
변 수	집 단	빈 도	%	집 단	빈 도	%
연 령	40세미만	21	(7.7)	35세미만	8	(2.9)
	40이상~45세미만	146	(53.3)	35이상~40세미만	102	(37.2)
	45이상~50세미만	89	(32.5)	40이상~45세미만	125	(45.6)
	50세이상	18	(6.6)	45이상~50세미만	36	(13.1)
				50세이상	3	(1.1)
	합 계	274	(100.0)	합 계	274	(100.0)
	평균(표준편차)	43.81	(3.45)	평균(표준편차)	40.66	(3.35)
학 력	중졸이하	23	(8.4)	중졸이하	22	(8.0)
	고졸	101	(36.9)	고졸	137	(50.0)
	전문대졸	27	(9.9)	전문대졸	28	(10.2)
	대졸	94	(34.3)	대졸	73	(26.6)
	대학원이상	26	(9.5)	대학원이상	12	(4.4)
	기타	3	(1.1)	기타	2	(0.7)
	합 계	274	(100.0)	합 계	274	(100.0)
직 업	생산직	42	(15.6)	생산직	17	(6.3)
	서비스	26	(9.7)	서비스	26	(9.7)
	판매직	27	(10.0)	판매직	18	(6.7)
	사무직	49	(18.2)	사무직	15	(5.6)
	반전문기술직	41	(15.2)	반전문기술직	27	(10.1)
	관리직	37	(13.8)	관리직	1	(0.4)
	전문직	19	(7.1)	전문직	4	(1.5)
	무직	3	(1.1)	전업주부	145	(54.1)
	퇴직	4	(1.5)	퇴직	2	(0.7)
	기타	21	(7.8)	기타	13	(4.9)
	합 계	269	(100.0)	합 계	268	(100.0)
가족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20	(8.1)	
	200만원~300만원미만			59	(23.9)	
	300만원~400만원미만			62	(25.1)	
	400만원~500만원미만			28	(11.3)	
	500만원~600만원미만			30	(12.1)	
	600만원~800만원미만			27	(11.0)	
	800만원~1000만원미만			11	(4.4)	
	1000만원이상			10	(4.0)	
	합 계			247	(100.0)	
	평균 (표준편차)			411.48	(231.66)	

가족을 1개구 당 8개씩 선정하여 총 200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비례층화표집은 사회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는데, 조사기관에서 훈련받은 면접원들이 조사대상자를 만나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일부지역은 서울지역과 인접한 부천과 안산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중학교 한 곳의 1학년 한 학급씩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수도권에는 모두 90가족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와 응답이 부실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7쌍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 277쌍(총 554명)이다.

이 연구의 자료분석은 각 척도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최종 사례 수는 부부간 정서적 지원 253쌍, 부부간 문제해결양식 240쌍, 자녀양육행동 252쌍이다.

3.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 요소로 측정한 변수는 부부간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그리고 자녀양육행동이다.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개인의 레질리언스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가족 체계의 특성으로부터 형성되는 가족의 자생적 능력이므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특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가족 체계 내 구성원 간의 관계와 특성을 측정하였다.

06옥선화(59-74)2006.5.812:37PM 페이지66

이 연구에서 부부의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 척도는 자기 보고 방식의 설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제보다 높게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편의 행동을 부인이 응답하고, 부인의 행동을 남편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IYFP를 기반으로 발표된 여러 연구들(Conger, Rueter & Elder, 1999; Simons *et al.*, 2002; Simons, Lorenz, Wu & Conger, 1993)은 자기 보고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 삼자의 관찰 방법이나 가족 중의 타인의 보고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따라, 남편과 부인이 평소 같이 있는 상황에서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배우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녀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모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상대방의 자녀양육행동에 대해 관찰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편과 부인의 자기 보고를 사용하였다.

1) 부부간 정서적 지원

부부간 정서적 지원은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아님(1점)에서 언제나(7점)에 이르는 7점 리커트 척도이다. 구체적인 문항을 예로 들면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중요한 일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물었습니까?', '귀하와 귀하의 생각 또는 한 일에 대해 배우자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까?',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귀하를 지지하거나 이해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등이다. 정서적 지원을 긍정적 방향으로 일관되게 점수화하기 위하여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 하였다.

2) 부부간 문제해결방식

부부간 문제해결방식은 모두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아님(1점)에서 언제나(7점)에 이르는 7점 리커트 척도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관심합니까?',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입장을 바꾸거나 협상합니까?' 등이다. 문제해결방식을 긍정적 방향으로 일관되게 점수화하기 위하여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 하였다.

3) 자녀양육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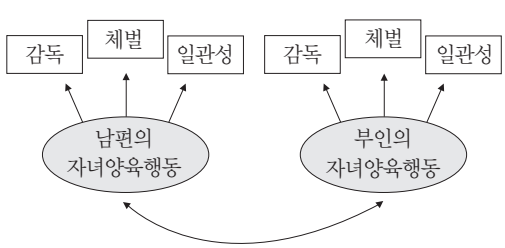
부모의 자녀양육행동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아님(1점)에서 언제나(5점)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귀하는 중 1자녀가 하루 동안 어디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귀하는 중 1자녀가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고 고함을 치십니까? 등이다. 자녀양육행동을 긍정적 방향으로 일관되게 점수화하기 위하여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 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IYFP에서 사용된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토하고, 이것이 한국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레질리언스를 측정하기에 적절한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통계적 분석 작업은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첫째, 조사대상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척도의 구성 타당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정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은 총 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결측치를 제외한 후 최종분석은 548명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목적은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인 부부의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자녀양육행동 척도가 각각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는지 탐색하는 데 있으므로 남편과 부인의 응답을 따로 구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가족 레질리언스 요소(부부간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측정요인을 구성하여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정적 요인분석에서는 각각의 가족 레질리언스 요소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의 잠재요인을 구성하고, 이 잠재요인을 구성하는 측정요인으로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도출된 하위 영역들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 레질리언스 변수 중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남편과 부인의 잠재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잠재요인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도출된 감독, 체벌, 일관성의 세 가지 측정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확정적 요인분석에서는 잠재 요인을 남편과 아내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변수들이 각각 남편과 부인의 잠재 요인에 부하되는 요인 부하치가 다를 수 있기



〈그림 1〉 자녀양육행동의 구성 타당도 측정을 위한 확정적 요인구조 검증 모형

06옥선화(59-74)2006.5.812:37PM페이지67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의 잠재 요인을 따로 구성함으로써 각각의 측정 요인들이 잠재 요인에 대해 가지는 요인부하치를 남편과 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부하치가 유사한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이 가족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을 구성하기에 적절한 척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자녀양육행동의 세 변수를 측정 요인으로 하는 확정적 요인구조 모형을 구성하여 모형의 적합도과 각 측정 요인의 요인 부하치를 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국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가족 레질리언스 요소들이 우리나라 가족에 적용하여 사용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척도의 신뢰도,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확정적 요인분석은 LISREL 8.5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신뢰도 분석 결과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간 내적 일관성인 Chronbach's α계수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세 영역에서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척도로 나타났다.

2. 구성 타당도 검증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의 구성 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정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부부간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요인을 측정요인으로 구성하는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부부간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은 각각 긍정적 영역과 부정적 영역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감독, 체벌, 일관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록 1- 3〉 참조).

첫째, 부부간 정서적 지원을 이루는 측정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두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긍정적 영역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감사와 애정의 표현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부정적 영역으로서,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기, 말다툼하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부부간 문제해결방식을 이루는 측정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두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긍정적 영역으로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부정적 영역으로서, 문제 해결에 대해 의지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양육행동을 이루는 측정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세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감독 영역으로, 자녀의 일과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지와 감독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체벌 영역으로서, 자녀를 벌줄 때 고함을 치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일관성 영역으로, 자녀에게 주는 벌의 종류가 변하지 않고, 규칙을 가지고 있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확정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도출된 요인들로 각각의 레질리언스 척도에 대하여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각의 척도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의 잠재변수를 설정하고, 그 측정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사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료들이 다변량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구성하는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측정요인들이 잠재 요인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고, 남편과 부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3〉은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측정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잠재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

〈표 2〉 가족 레질리언스 요소의 신뢰도 (Chronbach's α계수)

레질리언스 요소	미국 (IYFP 1차년도)			한 국		
	남편 (N)	부인 (N)	전체 (N)	남편 (N)	부인 (N)	전체 (N)
부부간 정서적 지원	.93 (451)	.92 (451)	.93 (902)	.93 (267)	.92 (261)	.92 (521)
부부간 문제해결방식	.88 (451)	.80 (451)	.85 (902)	.86 (255)	.82 (259)	.86 (514)
자녀양육행동	.79 (451)	.80 (451)	.80 (902)	.73 (267)	.76 (259)	.75 (526)

06옥선화(59-74)2006.5.812:37PM페이지68

〈표 3〉 가족 레질리언스 측정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및 응답 가능 범위

측정 요인		1.	2.	3.	4.	5.	6.	7.
정서적 지원	1. 긍정		**.53****	.67**	.43**	.20**	.17*	.13
	2. 부정[a]	**.52****		.40**	.72**	.10	.40**	.32**
문제해결방식	3. 긍정	.64**	.32**		**.47****	.11	.07	.08
	4. 부정[a]	.56**	.69**	**.50****		.07	.35**	.33**
자녀양육행동	5. 감독	.30**	.29**	.20**	.30**		**.20****	.13
	6. 체벌[a]	.21**	.34**	.16*	.40**	**.29****		**.46****
	7. 일관성	.13	.33**	.07	.28**	**.27****	**.35****	
남편 평균(표준편차)		38.3(9.6)	67.4(10.3)	28.7(6.8)	44.7(7.6)	14.0(2.9)	16.4(2.5)	7.0(1.5)
부인 평균(표준편차)		37.6(9.0)	68.7(9.8)	28.1(7.7)	44.9(7.0)	16.3(2.3)	16.1(2.3)	7.1(1.5)
t- score		.86	−1.4	1.01	−.41	−9.43***	1.34	−.41
응답 가능 범위(문항수)		8-56(8)	12-84(12)	6-42(6)	8-56(8)	4-20(4)	4-20(4)	2-10(2)

(대각선 위쪽은 남편, 아래쪽은 부인에 해당함)
*p 〈 .05, **p 〈 .01, ***p 〈 .001
[a] 부정적 영역은 역코딩 하였기 때문에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나타남.

요인들(표 안의 굵은 글씨체)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각 잠재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 요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확정적 요인분석에서 측정 요인의 요인 부하치가 유의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남편과 부인 간에 가족 레질리언스 측정 요인들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요인들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기 보고로 측정한 자녀양육행동 중, 감독 영역에 있어서는 남편의 평균이 14.0(표준편차 = 2.9), 부인의 평균이 16.3(표준편차 = 2.3)으로 남편과 부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9.43, p 〈 .001). 즉, 자녀양육행동에 있어 부인이 자녀를 감독한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남편이 자녀를 감독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부모 중 남편보다 부인이 자녀 감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측정 요인들의 분포가 다변량분석에 적합하도록 다변량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을 만족시키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편포도와 첨도 모두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충족시키지는 않았는데, 이는 측정 요인들의 삼차원적인 분포 형태가 정규분포의 형태를 띠지 않음을 뜻한다. 이는 자료가 다변량 분석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영가설을 기각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짐을 뜻하는 것이다. 즉,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유의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므로, 더 엄격한 모형의 검증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사전 분석 이후 실시한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 요소에 대한 확정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확정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 요인이 두 요인으로 이루어진 부부간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은 각각 모형의 자

〈표 4〉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의 확정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레질리언스 변수	χ^2 (df)	P	RMSEA	GFI	AGFI	CFI	CN
정서적 지원[a]	NA (0)	1.0					
문제해결방식[a]	NA (0)	1.0					
자녀양육행동	5.12(5)	.40	.01	.99	.97	1.00	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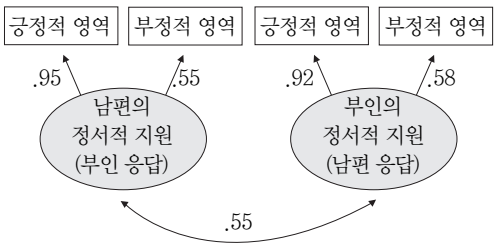
[a]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확정적 요인문석 모형은 자유도가 0으로, 모형이 완전 포화 상태에 이르러 모든 적합도 지수가 최고(perfect fit)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유도가 0으로서, 모형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계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양육행동의 경우에는 이론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χ^2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옴으로써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한 이론적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다양한 적합도 지수들은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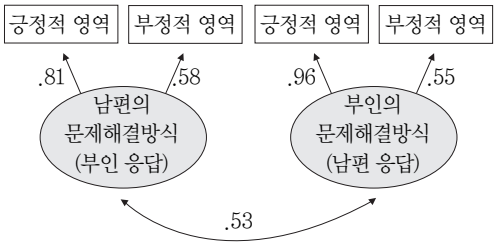
부부간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확정적 요인분석 결과의 표준추정치는 각각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남편과 부인으로 나누어 측정한 잠재요인들의 상관관계는 .53에서 .67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1.96, p 〈 .05). 또한 측정요인들의 잠재요인에 대한 요인부하치는 .24에서 .96사이로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1.96, p 〈.05).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를 통하여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제안된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자녀양육행동의 세 변수가 통계적으로도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적절한 요인으로 도출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자녀양육행동을 측정 요인으로 하는 잠재 요인을 남편과 부인의 가족 레질리언스로 구성하여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는 가족 레질리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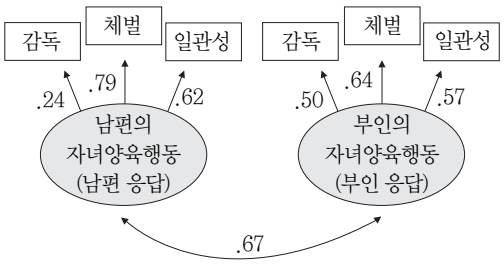
06옥선화(59-74)2006.5.812:37PM 페이지69



〈그림 2〉 정서적 지원의 확정적 요인분석 결과



〈그림 3〉 문제해결방식의 확정적 요인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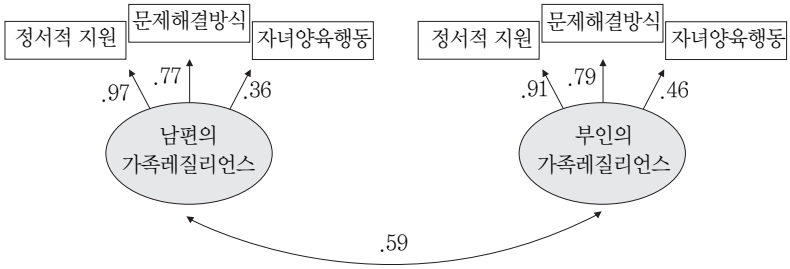
〈그림 4〉 자녀양육행동의 확정적 요인분석 결과

스 구성 요소로서의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자녀양육행동의 요인 부하치와 확정적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준다. 확정적 요인구조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일치도를 검증하는 다양한 정합도 지수들은 모두 확정적 구조 모형이 실제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론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χ^2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옴으로써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한 이론적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다양한 적합도 지수들 또한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준다.

각 측정 변인들이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 부하치는 남편과 부인의 경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정서적 지원 .97, 문제해결방식 .77, 자녀양육행동 .36이고, 부인의 경우 정서적 지원 .91, 문제해결방식 .77, 자녀양육행동 .46으로서 남편과 부인 모두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자녀양육행동의 순으로 요인 부하치가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이 .7 이상의 요인부하치를 보인데 비해 자녀양육행동은 .5 이하의 부하치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 측정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일관된 결과이다. 즉, 〈표 3〉에 제시된 상관관계를 보면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은 자녀양육행동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과 상관관계가 낮다. 이는 확정적 요인분석에 있어서도 자녀양육행동이 부부의 정서적 지원 및 문제해결방식과 다른 요인부하치를 가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림 5〉는 그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V. 논의 및 제언

가족생활주기 중에서 특히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시기에 속하는 청소년자녀기 가족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스트레스와 함께 다양한 어려움과 긴장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청소년 자녀기 가족의 부모는 다른 연령대 자녀의 부모보다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갈등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대학입시위주의 경쟁적인 교육풍토, 상업주의적인 소비문화, 청소년에게는 빈곤한 여가공간과 여가문화 등의 사회환경은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자살 등의 청소년부적응문제를 증가시키고 있어(김현실, 2005; 최윤진, 1999) 우리나라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스



χ^2 (df = 5) = 5.06 (p = .48); RMEA = .00; GFI = .99; AGFI = .97; CFI = 1.00; CN = 655

〈그림 5〉 가족레질리언스 척도의 확정적 요인분석 결과

06옥선화(59-74)2006.5.812:37PM페이지70

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가족이 직면한 힘든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이며 적응의 과정을 의미한다. 가족에 대한 강점과 자원을 강조하는 가족의 레질리언스 관점은 가족이 힘든 스트레스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보다 잘 적응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탄력적이 되도록 돕는 가족의 특성이나 속성이 무엇인지 규명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에서도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인의 레질리언스에 관한 것이었으며,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관점을 포괄하는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기의 가족이 스트레스를 극복, 적응하고 성장하게 하는 자질로서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규명하는 것은 청소년자녀기 가족에 대한 학문적 이해뿐만 아니라, 청소년자녀기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정책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척도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미국에서 개발된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들이 한국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청소년자녀기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들 중에서 부부간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 그리고 자녀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척도의 내용타당도와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녀기 가족의 부모 양쪽의 응답을 모두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개발된 척도들이 한국 가족에게 적용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간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은 각각 긍정적 영역과 부정적 영역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분석 결과 자유도가 0인 포화 모형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행동은 감독, 체벌, 일관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확정적 요인분석 결과 이론적 모형과 실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독, 체벌, 일관성으로 측정하는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이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자녀 양육행동에서 감독의 요인 부하치는 .24로, 부인의 요인 부하치 .50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자녀양육 실태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즉, 가족 내에서 남편의 부양자 역할과 부인의 가사 및 자녀양육 역할로 구분되어 인식되어 있는 우리나라 가족에서 실제적으로 자녀의 생활이나 행동반경에 대한 인지와 감독이 대부분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를 통하여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제안된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자녀양육행동의 세 변수가 통계적으로도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적절한 요인으로 도출되는지를 검증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자녀양육행동의 순으로 요인부하치가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이 .7 이상의 높은 요인부하치를 보인데 비해 자녀양육행동은 .5 이하의 비교적 낮은 부하치를 보였다. 이는 각 변수의 내용과 측정 방법 때문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즉, 각 변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이 모두 부부 간의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반해 자녀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상관분석 결과, 부부간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과 자녀양육행동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측정 방법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은 자기 보고가 아닌 상대방의 보고, 즉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는 부인이, 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남편이 보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자녀양육행동은 자기 보고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자와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보고자는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측정 요인 중에서 자녀양육행동의 요인부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척도를 한국 가족에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의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방식, 그리고 자녀양육행동으로 이루어진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의 요인구조가 한국 가족을 설명하는 데에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부의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하여 부부가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보고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자기 보고와 비교하여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가족 내부자의 보고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IYFP를 기반으로 발표된 여러 연구들(Conger, Rueter & Elder, 1999; Simons *et al.*, 2002; Simons, Lorenz, Wu & Conger, 1993)에 따르면, 자기 보고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보고 뿐만 아니라 관찰 자료를 사용하였다. 확정적 요인분석의 결과 부인과 남편의 잠재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가족 중 타인보고 방식의 한계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대해서는 남편과 부인의 자

06옥선화(59-74)2006.5.812:37PM페이지71

기 보고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측정요인 간의 관계들이 실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즉,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실제 자녀양육행동보다 더 일관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측정요인 간의 관계들이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들인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기준 타당도 중에서 본 연구는 내용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부부간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방식, 그리고 부모의 자녀양육행동 변수들이 가족 레질리언스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가족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수인지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기준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된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 척도를 우리나라의 가족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성 타당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상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역동적인 적응을 해야 하는 청소년 자녀기 가족을 대상으로 남편과 부인의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 가족레질리언스 개념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측정하는 관점과 방법을 확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사회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에 대해 보다 적절하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자녀기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상담치료 및 가족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족 레질리언스 요인들은 앞으로 우리 가족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에 대해 보다 적절하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해당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기 화, 정남운(2004). 만성질환 아동을 둔 가족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가족 탄력성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24.

김명자(2003). 퇴직한 남편과 그 부인의 탄력성과 적응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17-127.

김미옥(2001a).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영향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 9-40.

김미옥(2001b). 장애아동의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 34-70.

김현실(2005). 청소년 자살시도 예측요인. **대한 아동간호학회지, 11(1)**, 34-45.

오승아, 이양희(1999). 장애아동가족의 Resilience 관련 요인척도의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2)**, 21-48.

원유미(2000). 부모의 양육태도, 결혼만족도, 의사결정유형과 자녀특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덕순(1980). 아동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변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희(2000). 가족 탄력 모델을 이용한 정신분열병 환자가족의 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1**, 173-200.

이인수(2004).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가족심리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정신장애 자녀를 둔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21-239.

장수미(2001).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가족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개입모형 개발: 알코올중독의 세대간 전이를 예방하는 시각에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53-77.

최윤진(1999). '98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한국청소년학회.

최차숙(2002). 가족탄력성과 비장애 형제의 긍정적 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elsky (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3.

Belsky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Chamberlain, P., & Patterson, G. R. (1995). Discipline and child compliance.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IV(Pp. 205-225)*. NI: LEA.

Cicchetti, D., & Toth, S. L.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541-565.

Conger, K. J., Rueter, M. A., & Conger, R. D. (2000). The role of economic pressure in the lives of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The family stress model. In L. J. Crockett & R. K. Silbereisen (Eds.), *Negotiating adolescence in times of social change (Pp. 201-22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nger, R. D.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3)*, 643-656.

Conger, R. D., & Conger, K. J. (2002). Resilience in

06옥선화(59-74)2006.5.812:37PM 페이지72

midwestern families: Selected findings from the first decade of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61-373.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3). Family economic stress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06- 219.

Conger, R. D., & Elder, G. H., Jr. (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New York: Aldine de Gruyter.

Conger, R. D., Ge, X., Elder, G. H. Jr.,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Conger, R. D., Rueter, M. A., & Elder, G. H. Jr. (1999). Couple resilience to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54-71.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Dekovic, M., & Janssens, J. M.(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Elder, G. H. Jr., Conger, R. D., Foster, E. M., & Ardelt, M. (1992).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Family Issues, 13*, 5-37.

Ge, X., Lorenz, F. O., Conger, R. D., Elder, G. H. Jr., & Simons, R. L. (1994). Trajectories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67-483.

Harrington, R., Rutter, M., & Fombonne, E. (1997). Developmental pathways in depression, Multiple meanings, antecedents, and endpoi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601-616.

Hawley, D. R., & DeHaan, L. (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 283-298.

Hill, R. L. (1949). *Families under stress: Adjustment to the crises of war separation and reun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Klein, R. C. A., & Johnson, M. P. (2000). Strategies of couple conflict. In R. M. Milard & Steve Duck (Eds.), *Families as relationships(pp.79-97)*. Chchester: John Wiley & Sons, Ltd.

Kloep, M. (1995). Concurrent and predictive correlates of girls'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under conditions of economic crisis and value change: The case of Albania. *Journal of Adolescence, 18*, 445-458.

Kwon, H.-K. (2004). Protecting adolescents from the long-term effects of economic pressure: Evaluating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cCubbin, H., & Patterson, J.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6(1-2)*, 7-37.

McCubbin, H. I., & McCubbin, M. A. (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3)*, 247-254.

McCubbin, H. I. Thompson, A. I., & McCubbin, M. A. (1996). *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ublishers.

O'Connor, T. G., Hetherington, E. M., & Reiss, D. (1998). Family systems and adolescent development, shared and nonshar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nondivorced and remarried famil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353- 375.

Patterson, J. (1988). Families experiencing stress: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model. *Family Systems Medicine, 5(2)*, 202-237.

Patterson, J. (1991). Family resilience to the challenge of a child's disability. *Pediatri Annals, 20*, 491-499.

Patterson, J. M. (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49-360.

Patton, G. C., Coffey, C., Posterino, M., Carlin, J. B., & Wolfe, R. (2001). Parents' 'affectionless

06옥선화(59-74)2006.5.812:37PM페이지73

control' in adolescent depressive disorder.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6*, 475-480.

Perris, C., Arrindell, W. A., & Eisemann, M. (1994).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London: John Willy & Sons Ltd.

Rey, J. M. (1995). Perceptions of poor maternal care are associated with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4*, 95-100.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Robertson, J. R., & Simons, R. L. (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25-138.

Simons, R. L., Lin, K-H., Gordon, L. C., Brody, G. H., Murry, V., & Conger, R. D. (2002). Community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31-348.

Simons, R. L., Lorenz, F. O., Wu, C. I., & Conger, R. D. (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368-381.

Voydanoff, P. (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4)*, 1099-1115.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Walsh, F., & McGoldrick, M. (1991). *Living beyond loss*. New York: Norton & Company.

(2005년 8월 31일 접수, 2005년 11월 9일 채택)

06옥선화(59-74)2006.5.812:37PM페이지74

〈부록 1〉 정서적 지원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문항

요인	문항[a]	요인부하치[b]		Communalities	누적설명량(%)
긍정적 영역	11.	**.798**		.637	
	4.	**.770**	.233	.648	
	12.	**.728**	.250	.592	
	3.	**.714**	.271	.583	
	20.	**.688**	.287	.555	
	10.	**.681**	.189	.500	
	2.	**.678**	.195	.498	
	14.	**.669**	.214	.494	41.71
부정적 영역	6.	.160	**.787**	.644	
	16.	.119	**.768**	.604	
	15.	.250	**.767**	.650	
	9.	.126	**.717**	.530	
	8.	.144	**.711**	.527	
	7.	.292	**.708**	.586	
	18.	.154	**.700**	.514	
	1.	.237	**.681**	.520	
	17.	.241	**.676**	.516	
	13.	.229	**.611**	.426	
	5.	.197	**.605**	.405	
	19	.284	**.558**	.392	54.09

a) 요인부하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였음.
b) 요인부하치가 .1 미만인 경우 생략하였음.

(귀하의 부인께서는 .....)
1. 귀하에게 화를 냈습니까?
2. 중요한 일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물었습니까?
3. 귀하의 입장을 주의해서 들었습니까?
4. 귀하를 진정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까?
5. 귀하나 귀하의 생각을 비판했습니까?
6. 화가 나서 귀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7. 부인에게 얘기하려고 할 때 귀하를 무시했습니까?
8. 부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몹시 화나게 할 무언가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까?
9. 귀하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까?
10. 귀하에게 사랑스럽고 애정어린 행동을 했습니까?
11. 귀하와 귀하의 생각 또는 한 일에 대해 부인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까?
12. 귀하에게 중요한 일을 귀하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까?
13. 부인이 귀하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말했습니까?
14. 재미있는 것에 대해 귀하와 함께 크게 웃었습니까?
15. 귀하와 싸우거나 말다툼을 했습니까?
16. 귀하를 때리거나, 밀거나, 확 잡거나, 밀어붙였습니까?
17. 의견이 다를 때는 언제나 귀하와 말다툼을 했습니까?
18. 부인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울거나, 투덜대거나, 잔소리를 했습니까?
19. 귀하가 부인에게 부탁한 것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20. 귀하를 지지하거나 이해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부록 2〉 문제해결방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문항

요인	문항[a]	요인부하치[b]		Communalities	누적설명량(%)
긍정적 영역	7.	**.773**	.253	.662	
	8.	**.738**	.272	.619	
	4.	**.724**	.226	.575	
	3.	**.712**	.137	.526	
	1.	**.639**	.357	.536	
	14.	**.463**		.214	42.37
부정적 영역	12.	.258	**.779**	.674	
	11.	.425	**.711**	.686	
	5.		**.672**	.452	
	13.		**.662**	.447	
	6.	.352	**.642**	.536	
	9.	.304	**.637**	.498	
	2.		**.626**	.397	
	10.	.479	**.609**	.600	53.01

a) 요인부하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였음.
b) 요인부하치가 .1 미만인 경우 생략하였음.

(귀하의 부인께서는 .....)
1.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듣습니까?
2.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할 때 화가 난 것 같습니까?
3.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4.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귀하와 의견이 일치합니까?
5. 문제해결에 대한 귀하의 아이디어나 귀하에 대해 비판합니까?
6. 문제를 무시합니까?
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관심을 보입니까?
8.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하의 아이디어를 고려합니까?
9. 문제해결에 대해 형편없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까?
10.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관심합니까?
11. 의논을 하고서도 문제 해결하기를 거절합니까?
12.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13. 부인의 문제해결책에 대해 귀하가 동의할 것을 강요합니까?
14.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부인은 입장을 바꾸거나 타협점을 찾습니까?

〈부록 3〉 자녀양육행동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문항

요인	문항[a]	요인부하치[b]			Communalities	누적설명량(%)
감독	1.	**.859**	.106		.748	
	2.	**.849**			.727	
	3.	**.700**	.174		.529	
	4.	**.633**			.406	31.23
체벌	8.		**.794**	.187	.666	
	9.	.206	**.753**		.610	
	10.	.182	**.739**	.128	.596	
	7.	−.102	**.508**	.393	.423	50.61
일관성	5.	.133		**.868**	.772	
	6.	.110	.335	**.727**	.653	61.30

a) 요인부하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였음.
b) 요인부하치가 .1 미만인 경우 생략하였음.

(귀하는 .....)
1. 중1 자녀가 하루 동안 어디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 중1 자녀가 집 밖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3. 중1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 하십니까?
4. 중1 자녀가 귀가시간이나 취침시간을 지키는지 알고 계십니까?
5. 귀하는 같은 일에 대해 벌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까?
6. 귀하의 기분에 따라 중1 자녀에게 주는 벌의 종류가 달라집니까?
7. 중1 자녀가 잘 못 했을 때 화를 내고 고함을 치십니까?
8. 중1 자녀가 잘 못 했을 때 손으로 때리십니까?
9. 중1 자녀를 벌줄 때 허리띠나 방망이 등으로 때리십니까?
10. 중1 자녀가 잘 못 했을 때 자녀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거나 내쫓으십니까?